

특집을 내면서



우리나라에서 흑백 TV 방송이 1956년, 컬러 TV 방송이 1980년 부터 시작되어 이젠 TV 없는 생활이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세계는 정보화사회 건설이라는 21세기 대명제를 위해 통신·방송등 다방면에 걸쳐서 경쟁적으로 연구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위성을 이용하여 아날로그 방송을 운영중에 있으나, 정보화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송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디지털 위성방송을 위한 위성전송 방식의 연구결과로서 미국의 USSB는 '94년 5월 부터 시험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95년 발사하게 될 무궁화위성

을 이용한 직접위성방송의 전송방식을 디지털방식으로 결정하고, '96년 초부터 국내 시험방송을 위해 디지털 위성방송 전송 송·수신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회는 이번 연구회지를 디지털 위성방송을 특집으로 편집하였습니다. 본 특집은 정책논단, 기술논단과 학술논단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책논단은 우리나라 디지털 위성방송을 위한 방송사의 역할, 사업전망, 산업발전 효과, HDTV 기술동향 및 전망 등을 다루었고, 기술논단은 방송기술의 동향, 위성방송 전송기술과 이들 핵심기술, 디지털 텔레비전 아키텍처, 부가서비스등을 다루었으며, 학술논단은 최근 표준화가 진행중인 동화상 압축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MPEG 2 알고리즘을 다루었습니다.

차세대 TV로 불리는 HDTV는 보다 선명하고 보다 많은 정보와 보다 현장감 넘치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출현한 fully digital 방식을 채용한 전혀 새로운 TV 방식으로서 미국, 일본, 유럽에서 세계 우위의 선점차원에서 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97년 HDTV 실험방송을 위해 각 기관에서 분담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바, 예상치 않은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면서 이의 사전 단계로서 디지털 위성방송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 특집을 위하여 바쁘신 시간을 할애하여서 옥고를 집필하여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본 특집호에 광고를 협찬해 주신 여러 회사들과 본 특집호가 나오기까지 인쇄에 힘써주신 대지기획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특집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디지털 위성방송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램입니다.

문화방송(주) 기획조정실
뉴미디어팀 부장 박 건 철